

군산시 수산물 유통·판매 체질개선 속도

비유통 위판장 시설 개선 위생 어상자 교체·저온창고 보급 수산 가공식품 연구개발도 총력



군산시가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시설과 판매사업을 확충하는 등 체질 개선 사업을 펼친다.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가 조성된 비유통 일대. <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시설과 판매사업을 확충하는 등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은 과거부터 수산업이 크게 번창했으나 새만금 지역 어장 상실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뎠다.

시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5년 해망동에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를 건립, 수산 가공식품 육성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 소비 변화에 맞춰 수산물 유통·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는 198억원을 들여 연면적 9269㎡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수협 위판 물류동과 가공동이 들어서 있으며, 위생시설과 냉동창고, 홍보 판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6년 입주 당시 연간 생산량이 412t(매출액 68억원)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에는 생산량이 2530t(매출액 267억원)에 이르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를 포함한 예산 67억원을 확보해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분야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위생환경 개선과 쾌적한 위판환경 조성을 위해 7억8000만원을 들여 비유통 위판장에 대한 시설을 개선했으며,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32억원을 들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민들 대상으로 위생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와 수산물 저온·저장창고를 보급해 출하

수산물의 품질 유지는 물론 부가가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수산 가공식품 연구개발과 가공업체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가공기술을 접목해 침체된 지역 수산 가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시, 에스더블유케미컬즈 등 3개 기업 유치

382억원 들여 남원산단에 공장

(주)에스더블유케미컬즈 등 3개 기업이 남원 산업단지에 382억원을 들여 공장을 건립하고 투자에 나선다.

남원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주)에스더블유케미컬즈와 (주)나눔휴텍, (주)월드글로벌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나노다이아몬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에스더블유케미컬즈는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에 선정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일반산단 3만3000㎡ 부지에 총 106억원(고용 33명)을 투자, 생산라인을 새롭게 구축한다.

나눔휴텍은 8916㎡ 부지에 186억원(고용 57명)을 투자해 친환경 펄프소재를 활용한 천장텍스 및 건축마감재를 생산한다.

월드글로벌은 니트릴(의료용, 위생용)장갑을 제조할 예정으로, 부지 8250㎡에 90억원(고용 94



지난 2일 이환주(중앙) 남원시장이 (주)에스더블유케미컬즈, (주)나눔휴텍, (주)월드글로벌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명)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남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막걸리 트랩용 해충 유인액' 농가 보급

순창군은 유통기간이 지난 막걸리를 활용해 해충을 잡는 '막걸리 트랩용 해충 유인액'을 농가에 무상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막걸리 트랩은 생태도시연구소 이기상 박사가 고안한 벌레잡이에 쓰는 페트병 또는 재활용 용기다. 여기에 담는 용액은 막걸리, 설탕, 알코올, 주정을 혼합한 해충 유인액이다.

해충이 이 유인액의 향긋한 냄새를 맡고 막걸리 트랩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순창군에 따르면 막걸리 트랩으로 성충 1마리를 포획하면 유충 200마리 방제 효과가 있다.

특히 고추 농사에 피해를 주는 큰담배나방 유인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유충 200마리를 방제할 경우 고추 열매 800~1천 개를 지킬 수 있다.

일부 농가에서 막걸리 트랩을 사용해 큰 효과를 본 만큼, 군은 고추농가에 해충 유인액을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



진영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막걸리 생산업체 2곳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막걸리를 회수해 해충 유인액을 지속해서 보급하겠다"며 "저비용의 친환경적 해충 유인액이 고추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9@

고창군 '청년함께성장센터' 구축 업무협약

공공기관 6곳·전북대 등과 체결

고창군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곳, 공공상생연대기금·전북대학교가 손잡고 지역청년들의 소통 창구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공·관이 함께하는 고창군 청년함께성장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고창군, 전북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공공상생연대기금, 전북대학교가 참여했다.

'고창군 청년함께성장센터'는 혁신도시공공기

관·상생연대기금·지역거점대학이 처음 시도하는 전북도 지역발전 프로젝트로, 고창군의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만들고,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다.

특히 센터설립 이후에도 지역 청년들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프로그램(지적재산권, 디자인·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하며 상호협력 한다.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해 7월 전략회의를 통해 고창군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향후 고창군 청년들이 함성센터 장소부터 유형에 따른 공간구성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해 고창군 최초 청년 활동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쌍화차·주향거리 특화거리 지정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 나선다 행안부 공모 선정 국비 8억 확보

정읍시가 쌍화차거리와 주향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침체한 옛 도심 활성화와 골목상권 부활을 위해 쌍화차 거리와 주향(酒香)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읍시 장평동에 있는 쌍화차 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전국 유일의 쌍화차 거리다.

정읍세무서 후문에서 정읍경찰서로 이어지는 450m에 이르는 길에 15개 쌍화차집이 양옆으로 자리해 있다.

주향 거리는 정읍세무서에서 새암로까지 200m 길이의 정읍 옛 도심의 대표 상권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골목상권 회복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등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곳에선 양조장 3곳이 11월 정읍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전통적 느낌에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 지역막걸리의 상표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특화 거리 지정에 계기로 침체한 옛 도심 골목상권이 부활하길 기대한다"며 "관광명소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새콤달콤 정읍 체리 맛 보세요 정읍 체리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했다. 정읍 체리는 딸기의 6배, 사과 20배에 달하는 철분과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노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정읍시 제공>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